

제55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2일)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불

양희정 | 301호 불교조각실 |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의 가장 안쪽 방에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큰 철불이 전시 중이다. 높이가 2.81미터, 그 무게는 무려 6.2톤에 이른다.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의 절터에 허리께까지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911년 이왕가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법의와 무릎 앞에 펼쳐진 부채꼴의 주름,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려는 듯 다리 위에 올린 손 모양이 석굴암 본존불과 닮은 이 불상은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에 제작되었다.

이 불상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의 한 폐사지였다. 고려시대 행정 구역상 광주廣州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917년에 조선총독부가 행한 고적 조사의 보고서(『대정육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년 조선총독부 발간)에 따르면, 남쪽을 향한 철불이 동·서로 2구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크기가 더 큰 불상이 이왕가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나머지 한 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상을 만드는데 철이라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전기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시기의 일이다. 현재 50여 예가 알려져 있다. 금동, 화강암, 나무 등 여타 재질로 만든 불상이 전국에서 발견되는 데 비해, 철로 만든 불상은 경기도 광주, 개성, 철원, 강원도 원주, 충남 서산, 청양, 충북 충주, 전북 남원 등 한반도 중부 지방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신라의 수도 경주 주변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신라의 변경 지역에서 주로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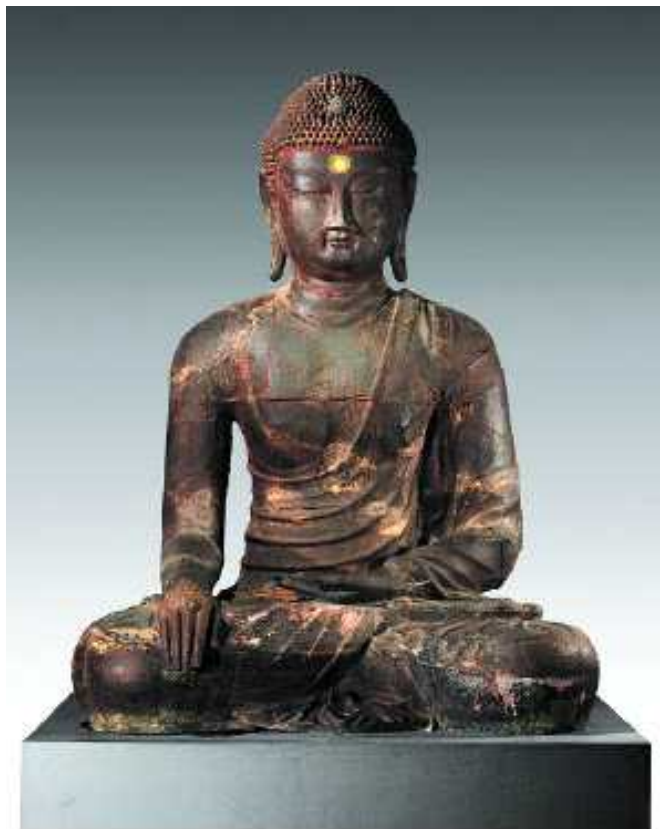


그림 1. <철불좌상>, 경기도 광주 하사창리 출토, 10세기, 철, 높이 281cm, 보물 제332호,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2748

제55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2일)

##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10)

### - 1940년대 단추, 사회를 담다

백승미 | 특별전시실 | 18:00~18:30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회 전반에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남겨 놓았습니다. 유럽 전역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특히 물자 공급의 부족은 가장 주된 해결 과제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럽 각국은 국가적인 소비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패션 산업도 예외 없이 전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물자와 원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공식적으로 원단의 폭과 사용량 등을 제한하거나, 전쟁에서 쓰고 남은 원단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규제를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스커트의 길이나 폭의 최대 치수, 주름의 수 까지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옷감과 수수한 장식을 활용한 실용적이고 간소한 패션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패션은 유틸리티 룩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여성옷의 경우 남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복에서 영향을 받은ミリ터리 룩은 여성의 옷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추는 오히려 패션의 새로운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옷감이나 장식 등 여러 요소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작고 소박한 단추는 가장 손쉽게 꾸밀 수 있는 주요한 장식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추는 주로 유쾌한 느낌이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벨트 등과 맞추어 수수한 옷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머니에도 종종 달았으며, 패딩을 넣어 입체적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유명 공방에서 생산한 도자기 단추는 당시 매우 인기 있는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이밖에도 1940년대의 단추에는 전쟁의 현실을 반영한 일종의 애국주의적 표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영토 모양의 단추에 국기의 색상을 넣는가 하면, 군모를 쓴 군인 모습 단추, 연합국의 국기 단추, 군악대의 북 모양 단추 등은 단추에 담긴 당대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1. <애국주의적 단추>, 블랑팡-티본, 루슬레 하우스, 장 끌레망 등 디자인, 1944년경, 채색한 플라스틱과 나무, 유약을 바른 도자기, 금속 ©Les Arts Décoratifs, Paris

## 집자集字 비석

### -태자사 낭공대사비太子寺 郎空大師碑

박성원 | 201호 서예실 | 19:00~19:30



그림1. <태자사 낭공대사비> 탁본 부분

<태자사 낭공대사비> (보물 제1877호)는 신라의 낭공대사郎空大師(832~916)의 탑비塔碑이다. 비석에는 신라의 국사國師 낭공대사의 85년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 글은 최치원崔致遠의 동생이자 신라 말 고려 초 최고 문장가인 최인연崔仁流(868~944)이 지었고, 글씨는 신라 최고의 명필 김생金生(711~791)의 글씨를 집자한 것으로, 집자한 이는 단목端木스님이다. 비석은 신라 때가 아닌, 낭공대사의 사후 37년 후인 고려 광종 5년 954년 갑인甲寅년 칠월 십오일에 세워졌다.

김생은 한국의 신품사현神品四賢의 첫 번째로 꼽는 최고의 명필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에도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김생은 평생을 서법에 매진했으며 글씨는 입신入神 경지에 들었다. 송宋 휘

종徽宗 때 고려 사신 홍관洪灌(?~1126)이 가져간 김생의 행초서첩을 보며 당시 한림대조翰林待詔 두 사람은 글씨의 활달함과 뛰어남에 이를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로 여기며 김생의 글씨임을 믿지 않았다.(삼국사기 요약)” 또한 김생이 쓴 <창림사비昌林寺碑> 글씨를 보고 원元 조맹부趙孟頫는 「동서당집고첩발東書堂集古帖跋」에 그 인상을 남겼다. 김생의 글씨에 대한 찬사와 감동을 고려와 조선의 수많은 문인들도 글로 기록했다. 이같이 명필 김생의 글씨로 비석을 만든 것에서 볼 때 낭공대사의 탑과 탑비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집자는 단순히 글씨를 모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자한 글씨들 간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완벽한 조합이 관건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정성들여 집자를 하는 공덕과 정성, 그리고 비석에 기리는 인물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이 담겨있다.

태자사의 폐사 이후, 낭공대사비의 자취는 1509년 영주 군수 이항李沆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 뒤 긴 세월 후에 <태자사 낭공대사비>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큰 집에서 이항이 남긴 글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로서 존재하고 있다.



##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13)

### - 아라비아의 순례길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메카(mecca)는 역사적으로 아라비아의 상인들, 여행자,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도시였다. 메카로 가는 길은 아라비아 반도 뿐만 아니라 시리아나 이집트, 이라크 등 주변 지역의 경제, 종교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초기 이슬람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순례길 3개가 아라비안 반도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순례길은 북쪽의 인구 밀집 지역인 카이로와 푸스타트, 다마스쿠스와 바그다드에서 시작해서 남쪽의 메카와 메디나로 이어진다. 이러한 순례길은 종종 고대의 교역로를 이용하였고, 이슬람 이전 시대의 거주지들이 순례길의 거점 도시로 성장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는 길은 요르단을 지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계를 넘어 타북(Tabuk), 올라(al-Ula) 등 아라비아의 주요 도시를 거쳐 메디나로 이어진다. 우마이야 왕조 시대(661-750)의 이슬람 통치자들은 이 순례길에 큰 관심을 갖고 우물, 모스크, 이정표를 건설하고 주요 지역마다 관측소나 성을 세워 순례자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오스만의 술탄 하미드 2세 재위 시절인 1908년에는 철도가 건설되어 순례 여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순례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이라크에서 시작하는 길은 바그다드에서 출발하는 길과 쿠파(Kufah)에서 출발하여 메카로 가는 2개의 길로 나뉜다. 쿠파에서 출발하는 길은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이용했던 순례길이었다. 이 길을 따라 50개의 쉼터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큰 도시로 발전했다.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순례자들은 시나이 반도를 건너 홍해 연안 도시를 지나 메카나 메디나로 이동했다. 19세기 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수에즈에서 제다까지 배로 이동하는 길을 이용하기도 했다. 남쪽 예멘에서 출발하는 순례길도 유명하다. 이 아라비아 남부 고대 왕국의 항 무역로에 기반해 있는 이 길은 물과 식량 자원이 풍부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오만)에서 출발한 많은 무슬림들이 이 길을 이용했다.



그림1. <이정표>, 8세기 후반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